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4. 4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전화번호	3441-0611
------	---------	-------	----------	------	-----------

제 목: 2007년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1.11대책으로 급락했던 체감경기 회복됐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 중소 및 지방업체의 체감경기 침체도 여전히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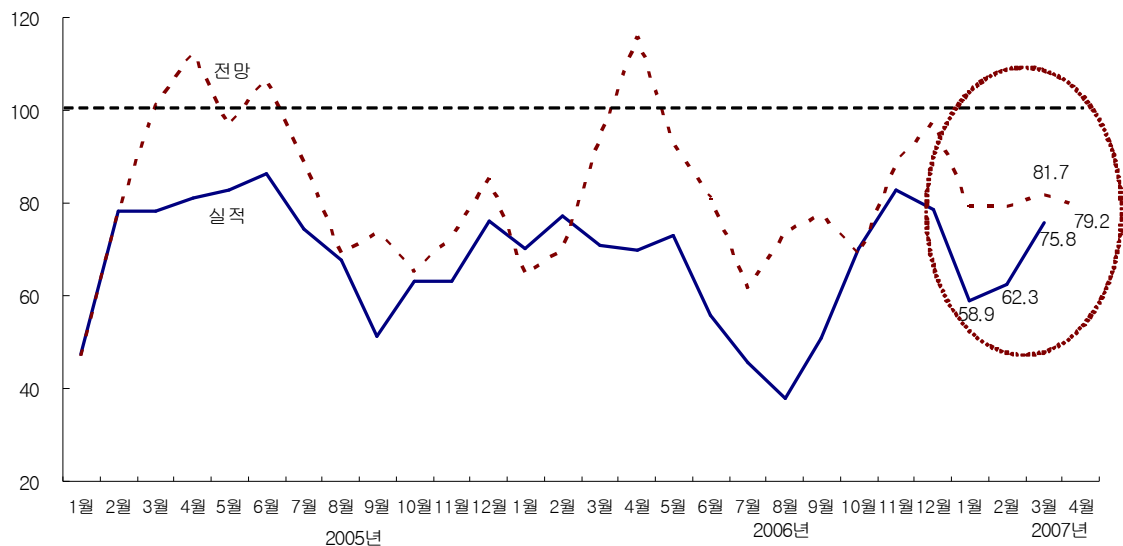
- 지난 1월 1.11대책에 의한 심리적 위축으로 큰 폭(-19.8p) 하락했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두달만에 어느 정도 회복됐으나, 지수는 아직도 낮아 건설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3.4p 상승에 이어 3월에도 전월대비 13.4p 상승한 75.8을 기록함으로써 지난 1월 1.11대책에 의한 심리적 위축으로 큰 폭(-19.8p) 하락했던 체감경기가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작년 12월 수준(78.7)을 거의 회복
 - 그러나 지수 자체는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 훨씬 못 미쳐 체감경기는 아직도 부진한 상황
- 업체 규모별로는 전월에 11.8p 상승하여 안정을 되찾았던 대형업체가 3월에는 소폭(2.8p) 상승한데 그친 반면, 중견 및 중소기업체는 한달 늦은 3월에 상승하며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임.
 - 전월에 11.8p 상승했던 대형업체는 3월에는 전월대비 2.8p 상승한 84.6을 기록
 - 반면, 전월에 각각 1.7p, 0.7p 하락했던 중견, 중소기업체는 3월에는 전월대비 각각 26.1p, 11.4p 상승한 82.1, 58.1을 기록해 3월 지수 상승을 주도
- 중소업체 및 지방업체는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50대에 머물러 체감경기 침체 및 체감경기 양극화는 여전
 - 중소기업체는 전월대비 11.4p 상승했지만 지수 자체는 58.1에 불과해 체감경기 침체와 체감경기 양극화는 여전
 - 지역별로 서울업체가 전월대비 17.4p 상승한 89.4, 지방업체는 전월대비 6.9p 상승한 52.8을 기록했지만, 지방업체의 체감경기 침체는 여전
- 공사물량지수도 중견업체, 중소기업체, 지방업체의 지수 상승(각각 14.1p, 21.8p, 12.4p 상승)으로 전월대비 6.0p 상승한 70.8을 기록했으나, 중소 및 지방업체의 물량지수 침체는 여전(중소업체 52.9, 지방업체 45.1)
- 자금관련 지수, 인력 및 자재수급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지수가 전월대비 22.4p나 하락한 68.4를 기록하여 봄철 자재비 상황이 악화

2007년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전월대비 13.4p 상승한 75.8을 기록한 가운데,
중소업체 및 지방업체의 체감경기 침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

- 2007년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5.8을 기록함.
 -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13.4p 상승했음.
 - 이로써 건설업체 체감경기는 지난 1월 1.11대책 영향으로 전월대비 큰 폭(-19.8p)으로 하락하기 직전인 작년 12월 수준(78.7)을 거의 회복하였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 못 미쳐 건설업체의 체감경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못하고 있음.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 건설업체의 지수가 전월보다 2.8p 상승한 84.6을 기록했고, 중견업체는 전월대비 26.1p 상승한 82.1을 기록하였으며, 중소기업도 전월대비 11.4p 상승한 58.1을 기록하였음.

- 결국 중견업체가 3월 체감경기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중소기업체도 전월대비 지수가 11.4p 상승하여 전월보다 대형업체와의 체감경기 양극화는 다소 완화되었음.
- 그렇지만 중소기업체의 지수는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어 체감경기의 침체가 아직도 심각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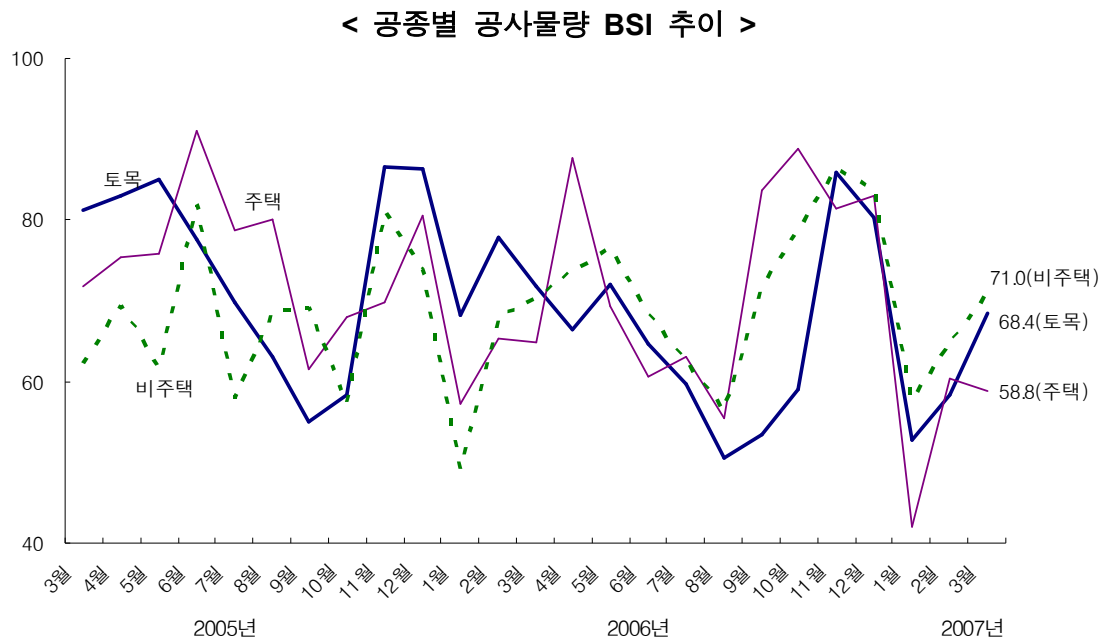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6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년 1월	2월	3월		4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73.1	55.7	45.6	37.8	50.9	70.1	82.8	78.7	58.9	62.3	75.8	81.7	79.2
규모 별	대형	100.0	83.3	46.2	33.3	60.0	70.0	100.0	90.0	70.0	81.8	84.6	90.9	84.6
	중견	62.5	45.5	48.6	48.0	48.1	84.6	91.7	85.0	57.7	56.0	82.1	76.0	84.6
	중소	53.7	35.0	41.7	31.4	43.5	53.7	52.6	58.3	47.4	46.7	58.1	77.4	66.7
지역 별	서울	87.2	66.5	50.2	33.4	58.0	71.5	89.9	82.1	67.4	72.0	89.4	86.8	86.0
	지방	52.3	39.9	38.5	45.0	40.0	67.7	67.7	71.8	42.6	45.9	52.8	73.0	67.5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가 각각 89.4, 52.8을 기록하였음.
 - 서울업체의 체감경기는 전월대비 17.4p 상승하였으며, 지방업체는 전월대비 6.9p 상승하였음.
 - 지방업체는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자체가 여전히 50대에 머물러 체감경기 부진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
 - 또한 서울업체에 비해 지방업체의 지수 개선이 미흡해 서울업체와 지방업체간의 체감경기 양극화는 전월보다 더 심화되었음.
- 2007년 4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79.2를 기록했음.
 - 업체 규모별로 세부적인 건설경기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건설업체, 중견업체는 모두 84.6으로 전망했으며, 중소기업체는 66.7로 전망했음.

공사물량지수도 대형업체 주도로 전월대비 10.9p 상승한 64.8을 기록한 가운데,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의 공사물량지수는 사상 최악수준으로 하락

- 2007년 3월 공사물량지수는 70.8을 기록했다.
-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6.0p 상승했음.



- 공종별로는 토목, 비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대비 각각 9.9p, 6.3p 상승하여 68.4, 71.0을 기록한 가운데, 주택물량지수가 전월대비 1.6p 하락한 58.8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주택물량 상황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음.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대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0.8	84.6	72.4	52.9	85.7	45.1
	전망	75.1	92.3	71.4	59.2	86.3	55.3
토목	실적	68.4	84.6	64.3	54.1	80.2	48.5
	전망	69.5	84.6	64.3	57.7	76.2	59.5
주택	실적	58.8	61.5	64.3	49.2	67.2	43.4
	전망	74.8	84.6	85.7	50.8	85.0	59.0
비주택	실적	71.0	84.6	71.4	54.5	80.1	56.0
	전망	81.7	107.7	74.1	60.0	94.4	60.4

주 : 실적은 2007년 3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7년 4월 예측지수임.

- 업체 규모별 공사물량지수는 대형업체가 전월대비 15.4p 하락한 84.6을 기록하였고, 중견업체는 전월대비 14.1p 상승한 72.4를 기록하였으며, 중소기업체는 전월대비 21.8p 상승한 52.9를 기록했음.
- 결국 대형업체의 물량지수 하락(전월대비 15.4p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 상승(각각 14.1p, 21.8p 상승)에 힘입어 전체 물량지수가 전월대비 6.0p 상승한 70.8을 기록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중소기업체는 물량지수의 큰 폭(21.8p)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가 여전히 52.9에 불과하여 물량지수 부진이 아직 심각한 수준임.
- 지역별로도 서울업체가 전월보다 1.5p 상승한 85.7, 지방업체가 전월보다 12.4p 상승한 45.1을 기록하여 지방 소재 업체가 전체 공사물량지수 상승을 주도했으나, 지방업체의 물량지수는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지방업체의 물량지수 부진이 심각한 수준임.
- 2007년 3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75.1을 기록하였음.

**인력 및 자재수급지수 양호,
자재비 지수 전월대비 22.4p나 하락한 68.4 기록**

- 공사대금수급지수 및 자금조달지수는 전월에 비해 각각 7.1p, 4.1p 상승한 90.9, 92.3을 기록하였으나, 지수 자체는 아직도 기준선인 100에는 조금 못 미쳐 자금 관련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역시 대형업체의 자금관련 지수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소기업체의 자금관련 지수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급	실적	90.9	100.0	93.1	77.6	97.5	79.5
		전망	88.3	100.0	86.2	77.0	93.1	80.1
	자금조달	실적	92.3	107.7	89.7	77.3	100.5	78.2
		전망	93.6	107.7	93.1	77.8	104.3	76.7
인력	수급	실적	112.6	107.7	127.6	101.3	116.3	106.3
		전망	110.6	107.7	124.1	98.6	115.6	103.2
	인건비	실적	84.7	92.3	89.7	70.3	88.8	77.7
		전망	82.3	84.6	89.7	71.2	85.0	77.7
자재	수급	실적	109.3	115.4	117.2	93.2	116.9	96.6
		전망	105.8	115.4	106.9	93.2	111.1	96.4
	비용	실적	68.4	84.6	65.5	52.7	79.4	49.4
		전망	68.6	84.6	69.0	49.3	78.6	51.5

주 : 실적은 2007년 3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7년 4월 예측지수임.

- 인력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112.6, 109.3을 기록하여 인력과 자재수급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 지수는 전월대비 0.8p 상승한 84.7을 기록하였으나, 지수 자체는 아직도 기준선인 100에는 못 미쳐 인건비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자재비지수가 전월대비 22.4p나 하락한 68.4를 기록하여 3월 들어 자재비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